

2011.04.04 미래정책연구실

□ FAO, 2011년 곡물 생산량 및 식량 상황 전망

1. FAO(2011.03.23) 주요 내용

□ 밀 생산 전망

○ FAO에서 첫 번째로 2011년 곡물 전망치를 제시한 「곡물 전망 및 식량 상황 보고서(Crop Prospects and Food Situation report)」에 따르면, 2011년 밀 생산량은 2010년(6억 5,370만 톤)보다 3.4% 증가한 6억 7,600만 톤에 달할 것으로 예상

- 이는 현재 곡물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데다 러시아를 비롯한 밀 생산국의 수익률이 개선되면서 밀 재배면적이 증가한데 기인함.

※ 2011년 밀 생산량 전망치는 여전히 2008년(6억 8,480만 톤)과 2009년(6억 8,260만 톤)보다 적은 수준

- 하지만 쌀을 포함한 조곡은 아직 과중전이기 때문에 작황에 대한 예측은 시기상조임.

□ 대륙별 곡물 생산 전망

○ 아시아 지역의 2011년 밀 생산량은 2010년보다 증가할 것으로 전망. 인도, 파키스탄, 카자흐스탄은 증가가 예상되지만, 중국은 감소 예상

- 2011년 인도와 파키스탄 밀 생산량은 2010년보다 각각 0.9%(70만 톤 증가), 3.0%(80만 톤 증가) 증가 전망

- 카자흐스탄의 경우, 2011년 밀 생산량은 2010년보다 56.2%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. 이는 가뭄피해가 컸던 작년보다 작황이 크게 호전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임.

- 중국의 2011년 밀 생산량은 2010년 대비 1.8% 감소한 1억 1,300만 톤으로 전망됨. 하지만 가뭄이 심했던 북부지역의 밀 작황이 최근 기상

여건 호조로 점차 호전되고 있어 현재의 생산량 전망치는 조정될 가능성이 높음.

○ 아프리카 지역의 2011년 곡물 생산은 지역별로 상이하게 나타남. 북·남 아프리카 지역의 곡물 생산량은 증가가 예상되지만, 동부지역은 지속된 가뭄으로 감소 전망

- 특히, 북아프리카 지역의 경우 밀 생산량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지만(튀니지 예외), 최근 리비아 사태로 대규모 인구 이동, 재화 및 서비스 유입의 차단 등 지역 정세가 불안정하여 국제 사회의 식량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.

※ 본래 북아프리카는 곡물 수입 의존도가 높은 지역임.

○ 남미의 경우, 아르헨티나와 우루과이의 2011년 옥수수 생산량은 라니나의 영향으로 감소가 예상되지만, 브라질은 기상여건 호조로 늘어날 전망

<주요 국가별 밀 생산량 전망>

단위: 백만 톤, %

구분	2008-10년 평균	2009년	2010년 (추정)	2011년 (전망)	2010년 대비 2011년 증감률
유럽연합	141.8	138.5	136.5	142.0	4.0
중국	114.2	115.1	115.1	113.0	-1.8
인도	80.0	80.7	80.8	81.5	0.9
미국	62.8	60.4	60.1	56.6	-5.8
러시아	55.7	61.7	41.5	55.0	32.5
캐나다	26.2	26.8	23.2	25.0	7.8
호주	23.2	21.9	26.3	24.0	-8.8
파키스탄	22.8	24.0	23.2	24.0	3.0
우크라이나	20.7	20.8	17.2	21.0	22.1
터어키	19.3	20.6	19.5	19.8	1.5
카자흐스탄	14.3	17.0	10.0	15.6	56.2
이란	12.4	13.0	14.5	13.2	-9.0
아르헨티나	10.4	8.8	14.0	13.5	-3.6
이집트	8.3	8.5	8.5	8.6	0.9
우즈베키스탄	6.5	6.6	6.7	6.6	-1.5
세계	674.4	684.5	653.7	676.0	3.4

자료: FAO, 「Crop Prospects and Food Situation」, 2011.

□ 저소득식량부족국가의 곡물 수입량 감소, 수입액은 증가 예상

- 저소득식량부족국가(low-income food-deficit, LIFDCs)의 2010/11년 곡물 생산량은 작황호조로 2009/10년보다 5.6% 증가하여 곡물 수입량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
- 하지만 2010/11년 곡물 총 수입액은 국제 곡물가격 상승으로 인해 2009/10년 대비 20% 증가할 것으로 추정됨.

2. 시사점

- 2011년 밀 생산량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최근 국제 밀 가격의 상승세가 어느 정도 완화될 가능성이 있음.
 - 하지만 최근 리비아 및 중동국가들의 국내 정세 불안, 일본의 지진 피해, 곡물 수출국의 시장 왜곡 조치 등은 향후 국제 곡물 수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음.
 - 더욱이 최근 라니아, 가뭄, 홍수 등 주요 곡물 생산국에서 발생한 기상 악화로 생산량이 크게 감소한 전례를 볼 때, 예측 불허의 기상이변도 국제 곡물의 수급 불안정을 야기할 잠재적 요인 중 하나임.
- 따라서 주요 곡물 수입국의 정세, 주요 곡물 생산국의 수출 정책 및 재배 상황에 대해 면밀한 관찰이 요구되며, 예상치 못한 수급 위기 상황에 대비한 수입곡물의 안정적인 확보 대책 필요

*자료작성: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미래정책연구실